

실용신안 무심사제 부실우려

전문심판관 부족 등 보완 필요

특허청이 시행할 계획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가 심판관이 부족하고 실용신안출원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에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2~3년내로 실용신안을 심사없이 등록해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제품의 모방이 쉬워 보통 2년이상이 걸려 실용신안으로 취득하더라도 권리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아직도 특허만큼 많고 그나마 기술수준이 낮아 출원대비 등록률이 50%미만이라 심사없이 등록할 경우 실용신안으로서의 수준유지가 의문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실용신안 무심사제를 도입한 일본은 실용신안 출원건수도 특허보다 대단히 적은데다 출원대비 등록률이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실용신안을 무심사제로 운영하면 출원후 공과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등록후 경합상태가 되는 당사자로부터의 무효 심판청구 등 분쟁소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분쟁담당 심판관수가 현재 15명 정도인데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은 더욱 적어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의 대응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은 심판관이 298명(9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0 배 수준이다.

한편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은 실용신안을 빨리 권리화해 사업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실용신안 무심사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전문화된 심판관의 확충과 실용신안 출원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공동처리 소각로 가동

유한김벌리, 안양공장 2기 준공

유한김벌리(대표 이종대)는 안양공장에 폐기물처리 소각로 2기를 준공했다.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가 총 20억원을 투자해 이번에 준공한 안양공장 소각로는 유한김벌리의 안양공장, 대전공장, 성남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처리하게 된다.

이 소각로는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폐지, 폐목재, 기타 쓰레기 등을 소각처리하게 되는데 소각능력은 시간당 730kg으로 연간 2556톤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원심력 집진시설 등 첨단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갖추고 있어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공장내 난방과 제지공정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유한김벌리는 기존에 김천공장에서 3기의 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소각능력 확대를 위해 폐기물 처리설비를 증설했다.

스티로폴 성형 가공기 생산나서

대공, 이달부터 공동판매사 설립

발포성형폴리스티렌(EPS) 성형기계류 전문 제작업체인 대공기계(대표 한덕희)가 오스트리아의 히르쉬사와 손잡고 고품질의 EPS가공기계의 생산에 들어갔다.

대공기계는 최근 히르쉬사와 기술 제휴 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 진공가압식 EPS가공기계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공기계 생산하는 기계는 건조방식이 종전의 수냉식이 아닌 진송식인 것이 특징으로 건조로가 필요없는데다 스티로폴의 성형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회사는 기술제휴와 함께 히르쉬사와 공동 판매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달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공과 히르쉬사가 각각 45%, 국내 개인이 10%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자본금 1억원으로 출범하는 판매회사는 국내시장과 아시아 지역의 판매를 전담할 예정이다.

대공은 앞으로 히르쉬의 고유 브랜드인 '베카트란스' '히르쉬'로 EPS가공기계를 판매할 계획이다.

대공기계는 해외 기술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올해 매출이 지난해 45억원보다 33.3% 늘어난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시장 집중공략 나서

대현, 제함기 수출 배증

제함기 전문 제작업체인 대현코퍼레이션(대표 정병욱)은

올해 일본과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포장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외국 판매회사를 통한 시장개척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회사는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백%이상 늘어난 150만 달러로 잡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우편제도 도입

대한, 사무자동화 일환

대한페이먼트링크(대표 한영재)는 서류없는 사무자동화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전자우편제도를 도입한다.

대한페이먼트가 도입할 전자우편제도는 업무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부서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통해 주고 받는 정보시스템으로 앞으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이같은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말 전자우편제도를 시험 가동했다.

올 매출목표 크게 늘려잡아

한창제지, 초지기 풀가동으로

한창제지(대표 이을용)는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의 550억원보다 60%나 늘어난 880억원으로 잡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기로 했다.

백판지업체인 한창제지가 이같이 매출계획을 의욕적으로 늘려잡은 것은 지난 92년말 600억원을 투입해 양산공장에 설치한 3호 초지기(월 생산능력 4,500톤)가 지난해까지는 가동률이 50% 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엔 기술적인 문제등으로 3호기가 월평균 2,500톤의 백판지를 생산했으나 기술진에 대한 교육으로 품질이 안정돼 1/4분기에는 월 3,500톤, 2/4분기 4,000톤, 3/4분기 이후 풀가동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3호기의 정상가동을 기준으로 한창제지의 생산능력은 종전 1,2호기의 9,000톤을 합쳐 모두 13,5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3호기에서 생산하는 백판지는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케이스 등을 만드는 종이로 1,2호기에서 생산하는 의류포장 상자

용종이 등에 비해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한창제지는 3호기의 정상가동으로 늘어나는 생산량을 해외에서 많이 소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올 수출목표를 지난해의 86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2,200만달러로 잡았다.

이를위해 기존 시장인 중국, 동남아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 등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창제지 부도처리

지급보증 경영부담

동창제지(대표 이세무)가 지난달 2일 서울신탁은행 무교지점에 만기로 돌아온 15억원과 신한은행 안양지점의 5억4백만원의 어음에 이어 3일에도 신한은행에 만기 도래한 2억8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동창제지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을 비롯 모두 20개 금융기관으로 금융부채 규모가 7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제지는 지난해 부도를 낸 봉명그룹과는 대주주가 친형제 간으로 직접 계열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동창제지가 봉명산업 및 도투락에 대해 450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점이 봉명부도 이후 경영의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봉명의 부도이후 동창제지가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차입을 받지 못한다며 최근 회사채 발행 때 보증기관이 차환발행을 위한 지급보증을 거절했고 이어 단자사 등 금융권이 자금회수에 나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동창제지는 국내 3위의 판지업체로 지난해 경기가 다소 부진했으나 매출이 꾸준히 유지돼 회사 운전자금 충당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발맷사에 초지기 발주

한국제지, 8백억투입 연산 12만톤

한국제지(대표 지동범)가 추진하고 있는 온산 초지2호기가 핀란드 발맷사 제품으로 결정됐다.

한국제지는 지난달 온산공장에 연산 12만톤 규모의 핀란드 발맷초지기를 발주하기로 하고 이 회사와 발주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온산공장에 건설되는 초지2호기는 사업비 8백억원이 투입

되는 고급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초지기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캄포머타입의 제3세대형 초지기로 회사측은 밝혔다.

생산 종이폭은 3,400mm, 운전속도는 분당 1,200m이며 최고 가동속도는 1,400m에 이른다.

지난해 양면 아티지를 국내에 출시하여 아티지 시장의 품질을 한단계 끌어올린 한국제지는 아티지에 이어 백상지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려 가격,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이다.

이번 인쇄용지 증설공사는 오는 6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상업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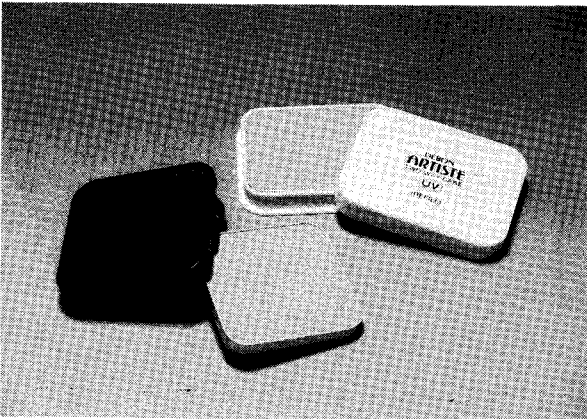
리필용 화장품용기 다양화

럭키, 브랜드 2종으로 확대

럭키는 화장품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리필제품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아티스테와 드레아 등 2개 브랜드의 리필용 상품인 투웨이케익을 출시했다.

럭키는 지난해 2월 아르도포센스 브랜드로 리필용 상품인 투웨이케익 파우더 파운데이션 커버메이크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아티스테와 드레아 브랜드의 리필제품 출시와 함께 금년 내로 아체리스 등 나머지 브랜드의 색조화장품에도 리필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리필화장품은 용기를 재활용하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품보다 25%정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실용성 때문에 최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럭키의 화장품 리필제품

재활용시행 국내업체들 불만 높아

수입업자 부담없어 형평결여

올들어 종이제조업, 유리용기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에 자원 재활용이 의무화됐으나 이들 제품의 수입업자에게는 별다른 재활용 부담이 없어 국내 메이커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해말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내메이커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처사라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지침에 따라 종이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국내 재활용 메이커들은 정부가 할당된 비율만큼 폐자재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당년도에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해 폐자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폐자재를 유발하는 수입업자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관련업체들은 폐자원 강제 사용에 대해 "할말이 많지만 자원 재활용을 높인다는 정부정책이니까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수입업자에게 아무런 재활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제지업체는 우선 기술적인 문제점, 고지의 원활한 회수, 고지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계설비 확충, 폐자재를 보관할 창고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나 수입업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 오히려 정부가 외제 수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리병 제조업체도 폐유리 사용을 강조한다면 우선 유리병 제조업체별로 상당한 야적부지가 필요하고 생유리 재료보다 오히려 폐유리 가격이 kg당 25원꼴로 더 비싸지는 등 경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병유리 수입업자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

무림, 자기개발시간 부여

무림제지그룹(회장 이동욱)이 제조업체로서는 드물게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림이 시행하고 있는 격주 휴무제는 조직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별로 2개조를 편성해 토요일에 번갈아 근무하며 비번조는 휴무일을 자기개발에 쓰도록 한다는 것

이다.

무림제지그룹은 사무직 및 기술직 사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1차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 전직원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림은 이밖에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기공 합양운동의 일환으로 결재라인의 축소(3단계 결재), 당직제도의 개선, 불필요한 서류의 폐기 및 모든 사무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 24만톤 규모 대전공장 설립

한솔, 판지생산 신규 참여

한솔제지(대표 구형우)가 판지생산에 신규참여한다.

한솔제지는 그동안 추진한 생산지종 다양화의 일환으로 신문용지 주생산에서 인쇄용지로 확대한데 이어 대전에 연 24만톤 생산규모의 백판지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이 백판지 공장은 모두 2천여원을 투자하여 오는 4월에 착공해 내년말 준공할 예정이다.

한솔제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29일 독일 술저사와 야겐버그사에 백판지 생산용 초지기와 코더기를 발주했다.

한솔제지는 대전 백판지 공장이 준공되면 전주의 신문용지 공장, 장항의 인쇄용지공장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제지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한편 판지업계는 한솔제지의 백판지 생산계획이 확정되자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솔제지는 이에 대해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 등 동남아에 수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신인사제도 마련 시행

한솔, 신원보증제 폐지

한솔제지는 명예회복제 신설, 신원보증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

한솔제지는 '한솔은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기업이념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인사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명예회복제는 전임직원의 기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앞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해도 2년내 인사성적에 의해 징계기록을 자동 말소하는 제도이다.

또 신원보증제를 완전 철폐했으며 기존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중도에 해지토록 했다.

주택부금, 자녀학자금 등의 지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노사간에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생산, 영업, 개발기능 통합

삼성종합화학, 고객지원실 설치

삼성종합화학(대표 황선두)은 최근 국내 유화업계 최초로 기술서비스(T/S), 연구, 품질관리, 상품기획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고객지원실'을 개설하고 전사적 차원의 고객지원 체계에 들어갔다.

이 조직의 설치로 삼성종합화학은 그동안 각 부문별로 분리 운영되어 오던 생산부문의 품질보증부와 영업부문의 기술지원팀 그리고 연구소의 신제품개발 및 T/S기능 등을 묶어 제품기획 및 개발-생산-판매-기술서비스 등 전체과정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대고객 지원 서비스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 고객지향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종합화학은 앞으로 고객지원실을 통해 품질개선과 대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품질목표를 설정해 생산제품의 품질재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의 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장과 고객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제품의 기획 개발에 응용하는 것은 물론 제품별 고객별 전문체제를 구축해 고객사와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 고객이 원하는 물성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품질정보 파악, 고객사에 적기 공급

삼성종합화학, 품질관리추적시스템 개발 운영

삼성종합화학은 원료 투입에서부터 생산, 유통, 최종고객의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생산, 유통, 고객관리 등 각 부문별로 관리하던 것을 제품별, 로트별로 원료의 투입에서부터 온도, 압력, 촉매, 투입 등 생산공정, 제품포장, 출하, 운송 등 유통과정, 고객의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 판매, 사후처리 등 전 과정을 컴퓨터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첨단관리 시스템이다.



▲삼성중합화학(주)는 제품별·로트별 신속한 품질정보 파악으로 고객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품질관리 추적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1회용 PS용기 본격 수출

거도, 내수 감소 활로 모색

라면컵을 비롯한 1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를 생산하는 서도산업(대표 김운수)이 올해 본격 수출에 나섰다.

1회용기 사용억제 분위기와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계속 감소,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거도산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7%가량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려 작년말 두 달간 5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올해는 인도네시아 외에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수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라면업체 납품위주에서 탈피하여 일반 시장수요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거도산업은 수년전에도 사우디에 햄버거 케이스를 수출한 바 있다.

한편 1회용기 업체는 90년초까지 7백~8백개 업체가 시장 경쟁을 벌여왔으나 그 이후로 업체수가 급증, 한때 2,900여 개 업체가 시장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류비용중 수송비가 가장 높아

중기협, 물류관리 실태조사

전체 매출액 가운데 물류비의 비중이 5%를 넘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에서 물류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공통적인 항목은 수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 제조업체 1천2백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물류관리 실태 및 당면과제'란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5%미만이 전체의 62.1%, 5~10%가 21.2%, 10% 이상이 16.7%로 나타났다. 매년 물류비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부문별 물류비용은 수송비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포장비용, 보관비용, 하역비, 물류정보 및 통신비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운반할 때 자기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55.6%이며 자사 차량의 화물 적재율은 제품을 배송할 때 평균 83.3%, 배송후 돌아올 때 15.4%로 나타나 귀사시 공차운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또한 자사 보유창고의 보관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고가 부족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아직 상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유통단계의 복잡화로 매년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단계의 필요성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멀티팩 아이스크림 판매급증

고급선호 경향, 인기판도 바뀌

비수기의 매출공백을 메우기 위해 빙과업체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전략상품으로 선보인 멀티팩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빙과시장의 인기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2~3백원대의 기존 저가 제품과는 달리 원재료와 포장을 고급화한 후 동일 제품을 여러개씩 한데 묶어 판매중인 멀티팩 아이스크림은 판매가격이 1~3천원대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고품질제품 선호추세에 힘입어 빙과시장의 제품별 인기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유화수출 자율규제 협의

PE등 반덤핑 제조 수습

석유화학업계는 국내산 PE, PP 반덤핑 제조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대만측과 수출 자율규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대만정부의 한국산 PE, PP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합성수지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합성수지 대표단은 92년도 하반기와 93년도 상반기 동안의 물량을 합한 것보다 적은 규모로 수출 물량을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한국측은 PP수출물량을 92년 하반기와 93년 상반기 동안의 물량을 합한 5만4천톤보다 4천톤이 줄어든 5만톤으로 올해 수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쇄용지매출 큰폭으로 떨어져

경기부진, 92년대비 5% 감소

인쇄용지 6사들의 지난해 매출실적은 설비증설이 있는 한솔제지와 흥원제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사들은 대폭적인 매출의 감소를 보이거나 정체를 보였다.

제지업체들이 이처럼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다 제지업체들의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업체들이 기존 시장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표준가격에 비해 20~30%씩 앓다뒀 할인판매를 벌였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 계성제지(남한제지, 풍만제지 포함), 무림제지(신무림제지 포함), 신호제지(동신제지 포함), 한국제지, 흥원제지 등 인쇄용지 6개업체들의 93년 매출액은 1조1천7백15억원으로 92년의 1조2백96억원보다 13.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증설물량을 내놓은 한솔과 흥원을 제외한 4개사의 93년 매출은 6천53억원으로 92년의 6천3백69억원보다 5%나 줄어들어 매년 자연증가율 10%선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는 사실상 15%대의 매출감소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증설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한솔제지가 92년 매출액 3천3백87억원에서 93년 4천8백50억원으로 43.2%, 흥원제지도 92년 5백40억원에서 93년 8백12억원으로 50.4% 증가했으나 기존 설비를 그대로 가동한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상당폭 매출이 줄었다.

이에따라 신문용지를 주력으로 하는 한솔제지를 제외하고

전업체들이 예외없이 적자를 봤으며 적자규모는 회사별로 6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용지업체는 올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솔과 한국제지가 증설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동해필프가 초지기를 발주해 필프에서 백상지까지의 일괄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 당분간 물량 과잉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Propak Asia '94

다음달 11일부터 열려

Salon Culinaire, Food-Hotel Asia 및 Propak Asia 94가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가공식품 전시, 식품조리 전시, 호텔음식·기기, 식품포장기기 등 식품전반에 관해 모두 9개의 홀에서 약 1,000개 업체가 참가하게 된다.

올해로 9번째인 Salon Culinaire 94는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세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의 장으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권 시장개척의 신선한 장이 될 것이다.

또 Food-Hotel Asia는 아시아-태평양권 식품분야의 21세기 발전에 대한 전시회로서 다양한 가공식품 소개와 호텔음식 및 기기가 전시된다.

Propak Asia 94는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국제식품저장 및 포장기술·기기에 관한 전문 전시회로 식품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식품관련업계의 정보와 시장동향 파악의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 종합정보센터(STS)는 다음달 4일까지 이들 전시회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는다(문의전화:563-8283).



▲ 제6회 Propak Asia 전시회 모습

물류 특별세미나 개최

물류정보센터, 향후 투자전망 진단

물류자료정보센터(소장 한상원)는 물류센터 및 부동산과 관련된 물류 특별세미나를 지난달 22, 23 양일간 중소기업 회관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하여 물류센터(물류창고) 건립 활성화 방안이 입법화됨에 따라 물류센터와 관련된 공급점 및 투자전망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내용은 ▲물류정책 방향과 관련규제 완화 해설 ▲물류관련법규 해설 ▲물류센터 및 창고(부동산)의 향후 투자전망 ▲물류센터 사례 발표회 ▲전사적 물류마인드 고취 특강 및 특별행사 등이다.

한편 물류자료정보센터는 전사적 물류마인드 고취에 대한 무료 강좌를 이달 8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실시한다.

수입금지 인쇄기계 가격급등

금지이전 새 기계값에 거래돼

최근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인 중고인쇄기계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중고 읍셋 5절양면기의 경우 연수에 따라 수입금지 이전(93년 2월 9일)의 새 기계값과 비슷한 4천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체는 종이규격(52cm이하)으로 양면기를 수입 금지시켜 중고기계 값만 크게 올라 자금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중고 인쇄기의 거래는 A/S의 불확실성과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양면기가 수입금지 됨으로써 양면기를 중심으로 한 중고인쇄기의 거래가 많아졌다.

따라서 인쇄업계는 정부가 인쇄기의 국산화 방침에 따라 수입금지시킨 결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양면기의 수입은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쇄업계는 "현재 수입금지된 읍셋 5절양면 인쇄기가 수입금지 품목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고값만 계속 오르게 돼 인쇄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 지적했다.

식음료 캔 공급 과잉

설비 넘쳐, 일부 덤핑판매

식음료 캔의 공급과잉으로 일부업체들이 덤핑판매에 나서 등 캔 생산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식음료 캔의 수요량은 38억관 정도인데 전체 식음료 캔 업체들의 생산능력은 55억관에 달해 심한 공급과잉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식음료 캔 제조업체들의 설비가동률이 60~70% 선에 머무르고 있고 납품과정에서 일부업체의 덤핑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이 캔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은 내수부진과 하절기 일기불순으로 지난 91년 43억관을 정점으로 캔의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캔 업체들이 91년이후 모두 13억5,000관 정도의 생산설비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캔 업체들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성수기에 집중되는 몰량에 맞춰 경쟁적으로 시설을 증설해 왔다.

또 캔의 소비량이 지난 91년까지 연평균 20% 내외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설비과잉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용기별로는 스틸 투피스캔의 공급과잉이 두드러져 탄산음료의 용기로 쓰이는 스틸 투피스캔의 경우 지난해 6월 영보금속이 생산에 신규 참여한 것을 비롯 91년 이후 3개사가 각각 1개씩의 라인을 증설 또는 신설함에 따라 전체 생산능력이 16억관으로 수요량 9억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또한 맥주용 알루미늄 캔도 신규업체의 참여로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영보금속과 삼화제관이 올해부터 알루미늄 캔 생산에 본격 참여할 경우 전체 생산능력이 11억관에 달해 진로의 맥주시장 신규참여를 감안한 캔 수요량 6억여관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일제관도 포철과 협의, 스틸을 소재로 한 맥주용 캔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공급과잉의 해소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장관련단체 잇달아 총회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포장관련 단체들이 올해 정기총회를 대부분 지난달에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에 정기총회를 가진 포장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경기부진에 따른 회원사 및 조합사들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활로를 모색한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UR타결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포장관련 단체들이 이같이 활로모색에 적극 나선 것은 최근 몇년간 이어진 경기부진에 시장개방후에 불어닥칠 영향

으로 인한 위기에서 탈피,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여 업계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각 단체별 총회가 치루어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 : 서울지류도매업협동조합,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23일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재생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지대공업협동조합

△24일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합성수지공기계조합, 서울인쇄조합, 스크린인쇄조합,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25일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26일 : 대한인쇄협동조합연합회



▲골판지 포장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정기총회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정기총회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정기총회

잡재수요 큰 중국 특수바람

제지업계, 지사설립등 적극 진출

제지업계에 중국 특수바람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펄프 등 제지사들이 지난달까지의 중국 수출물량 확보가 끝나는 등 밀려드는 중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제지수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제지업계는 중국 경공업제품의 수출증가에 따라 지난해 7월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시장의 급성장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게 된 제지업계는 중국 특수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공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는 인쇄용지, 판지, 화장지 등 지종별로 국내 생산업체들은 중국시장을 겨냥, 홍콩 등을 거점으로 제지수출에 나선데 이어 북경 등에 자사설립을 검토하는 등 수출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제지수출 규모는 판지의 경우 지난해 14만톤 7천만달러 상상이었고 인쇄용지는 4만5천톤 3만8천달러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무림제지, 대한펄프 등이 홍콩지사를 중심으로 중국 제지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솔제지가 북경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무림제지가 상해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중이며 신호, 한국제지 등도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유한김벌리가 화장지 플랜트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몇몇 인쇄용지, 판지업체들이 직접 투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이 제지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1인당 종이 소비량이 아직 16.3kg으로 세계평균 45.3kg에 훨씬 모자라며 아시아평균 21kg에도 못미쳐 잡재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발멧초지기 발주 계약

동해, 2천6백만달러에

동해펄프(대표 김낙서)가 지난달 18일 스미모토 발멧사와 초지기 발주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측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초지기는 금액이 2,600만 달러에 달하며 계속적으로 백상지 생산을 위한 나머지 설비

에 대한 추가 계약에 나서게 된다고 말하고 전체설비 규모는 800억원선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주하는 초지기는 연산 18만톤 규모로 종이폭 5, 100mm, 평량(1평방m 넓이의 종이무게) 70~1백g의 백상지 원지를 분당 1, 200m의 속도로 생산하게 된다.

동해펄프는 백상지 생산을 위해 현재 금년 3월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 4월부터는 공장건설에 착수하고 내년초 발주설비가 도착하면 라인설치에 들어가 7월말까지 작업을 끝내고 한달간 시험생산을 거쳐 9월부터 상업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해펄프는 이와함께 연간 200만톤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12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독자 부두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플라스틱 가공기계 수출확대

중소업체, 내수부진 타개책

중소 플라스틱가공기계 업체들이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장사냉열, 통일공업 등 플라스틱가공기계 생산업체들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가공기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장사냉열(대표 오용웅)은 최근 일본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금형 자동냉각기, 냉온겸용 온도자동조절기 등의 대일본 수출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동경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박람회에도 출품, 수출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발포기 생산업체인 통일공업(김종목)은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미주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같이 중소 플라스틱가공기계 제작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국내시장의 침체로 내수의 확대가 어려운 반면 최근 외국시장에서는 엔고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식품업체 포장비 부담 크다

개발원 실태조사, 매출액 10%이상 절반 넘어

국내 기업들의 제품포장은 부가가치 향상보다 제품파손을 막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과대포장이 많고 매년 포장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관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고 경영진의 포장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독립된 포장부서를 두고 있는 업체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장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도 80%나 돼 아직까지 포장의 중요성만 인식하고 있을뿐 직접적인 투자에는 소극적인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포장업무에 대해 경영진의 70%이상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사대상 기업의 95%가 포장상담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된 포장관련부서를 두고 있는 업체는 28%에 불과하며 포장전담인력에 대해서는 80%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0%의 기업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해 포장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에서 포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라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이 넘는 60%로 나타났으며 6~10%인 업체가 10%, 11~15%인 업체가 16%로 조사됐고 포장비가 매출액의 21%를 넘는다는 업체도 4%나 됐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전자·섬유·의류업체들은 포장비 비용이 5%라고 응답한 업체가 80%이상인 반면 음식료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포장비가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장비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69%였으며 포장비의 증가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제품 고급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포장비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포장 표준화와 포장개선을 통해 포장재료를 절감했다고 지적, 포장의 과학화를 통해 포장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포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제품의 파손 방지가 75%로 가장 높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판촉은 17%를 차지했다.

포장필름등 5개부문 단체규격 획득

프라스틱조합, 인증단체 지정절차도 밟아

한국프라스틱조합(이사장 이국노)이 필름과 파이프 등 5개 부문에서 단체규격을 제정,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단체규격을 획득한 품목은 쓰레기봉투에 이어 ▲농업용 및 포장용 필름 ▲통신용 합성수지 전선관 ▲FC관 등이다.

특히 조합은 조달시장 개방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를 앞두고 향후 제품분야별로 1천에서 8천시리즈까지 8개분야로 나누어 단체규격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미 27개 부문의 단체규격을 제정, 우선 급한 부문부터 공업진흥청에 규격신청을 하기로 했다.

조합은 사후관리권 확보 등 단체규격의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공진청에 인증단체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

PP스핀본드 공급과잉 지속전망

업계 증설 물량늘어

PP(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업계가 최근 단기간에 생산설비를 잇따라 증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부직포 업계에 따르면 제일합섬, 삼양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PP스핀본드 설비를 대폭 증설한데 이어 한일합섬도 올 하반기 신규로 참여, 지난해 1만1천톤이던 생산물량이 올해에는 2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합섬은 지난해 9월 제2기라인 4천7백톤을 가동, 기존 2천3백톤 생산설비를 포함해 연산 7천톤 규모로 증설했다.

이 회사는 증설에 따른 물량증가를 대부분 자사 및 삼성물산 해외지사망을 통한 수출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삼양사는 지난해말 연산 3천5백톤 규모로 신규 참여, 이달부터 트리본이라는 상표로 제품을 출시했다.

또 제일합섬은 대구공장에 3천톤 규모의 스펀본드 설비를 설치, 올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관계자들은 PP스핀본드 공급물량이 단기간에 급증, 치열한 판매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알루미늄호일 시판

롯데, 환경보존형

롯데알미늄(대표 하태준)은 재생지를 이용한 환경보존형 가정용 알루미늄호일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새로운 알루미늄호일은 기존의 마닐라지에 알루미늄호일과 OPP필름을 라미네이팅 하던 것을 재생지로 대체한 것이다.

또 포장케이스에 부착된 스틸 톱날을 특수 코팅된 종이톱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폐기시 완전 소각이 가능도록 했다.

롯데는 현재 특허청에 이 신제품의 실용신안을 출원중이다.



▲롯데알미늄이 재생지를 이용하여 만든 환경친화성 제품인 신알루미늄호일

종이컵 수거 전담업체

평화지기 등 23곳 선정

평화지기 등 1회용 종이컵제조 23개사가 종이컵 재활용을 위한 수거전담업체로 선정됐다.

한국종이컵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중환)은 최근 1회용 종이컵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종이컵 재활용본부를 가동하고 서울 4개지역을 포함 전국 15개 지역별 전담업체로 모두 23개 회원을 지정했다.

조합은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종이컵 사용이 많은 자판기, 유원지 등에 1천개의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같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현재 20%에 불과한 종이컵 재활용률을 70% 선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지역별 종이컵 수거 전담업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 북부 = 평화지기, 기정산업, 조운산업